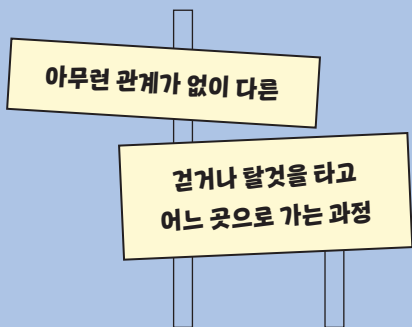


2022 대구청년학교 딴길 가이드북



2022 대구청년학교 판길

- 다른 길로 떠나는 과정

Chapter 1. 판길 준비하기

- 참가신청

Chapter 2. 판길 걸어보기

- 입학식
- 학과운영
- 체험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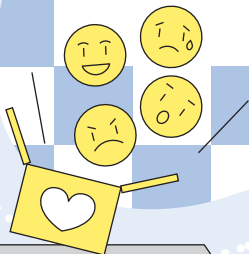
Chapter 3. 판길 돌아보기

- 졸업식

청년학교 판길은?

진로·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새로운 직업과
다른 삶의 방향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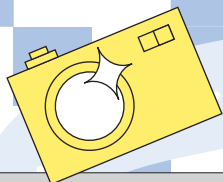
청년학교 판길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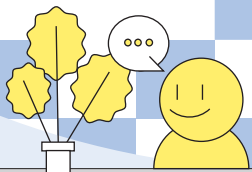
금쪽이학과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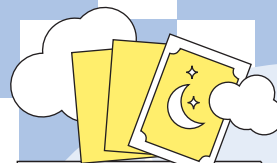
나도배우다학과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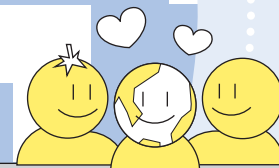
도전! 사진작가학과 → 26



반려채소키우기학과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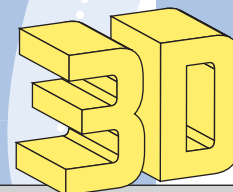
타로교육학과 → 48



HELLO, VEGAN학과 →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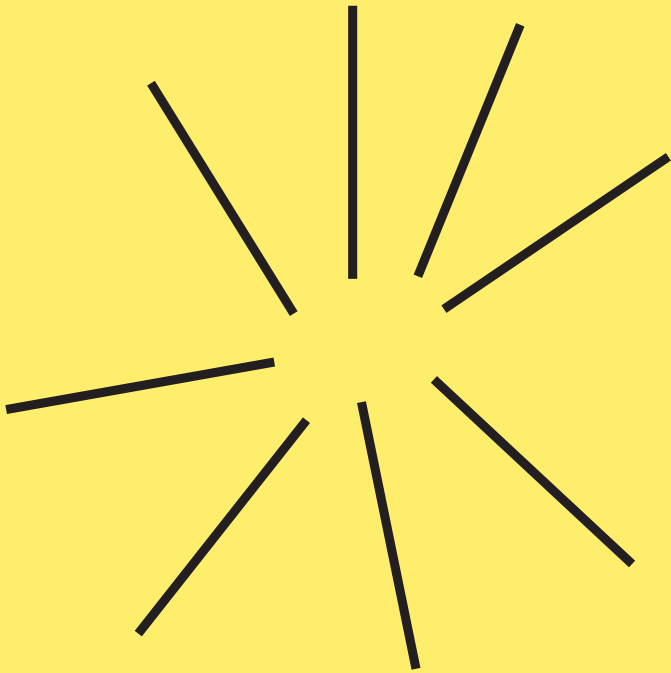
여행자학과 → 42



3D프린터학과 → 62

Chapter 1.

뜨길 준비하기



시작

참가신청

- 신청자격
대구지역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월)~
6월 19일(일) 23:59까지
 - 모집인원
학과당 15명 선착순 접수
(15명 이후 대기자 접수)
 - 신청방법
대구청년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 1 신청서 작성
5.30(월) ~ 6.19(일), 구글폼 작성
 - 2 참가비 입금
5.30(월) ~ 6.19(일), 참가비 50,000원
 - 3 접수 완료
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입금완료 순으로 접수



Chapter 2.

딴길 걸어보기

첫 발 그리고 걷기

입학식

-
- 대구청년센터 및 딴길 사업안내
-
- 딴길 전체 진행과정 안내
-
- 수료요건 안내
-
- 학과일정
-
- 청년학교 약속문 낭독
-
- 자기소개 시간
-

청년학교 약속문

1. '청년학교 딴길'은 경쟁이 아닌 각자의 속도에 맞게 배우는 학교입니다.
2. '청년학교 딴길'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함께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3. '청년학교 딴길'은 차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4. '청년학교 딴길'은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는 학교입니다.
5. '청년학교 딴길'에서 청년은 딴길을 상상하며 이 시간만큼은 자유로워집니다.





학과운영

금쪽이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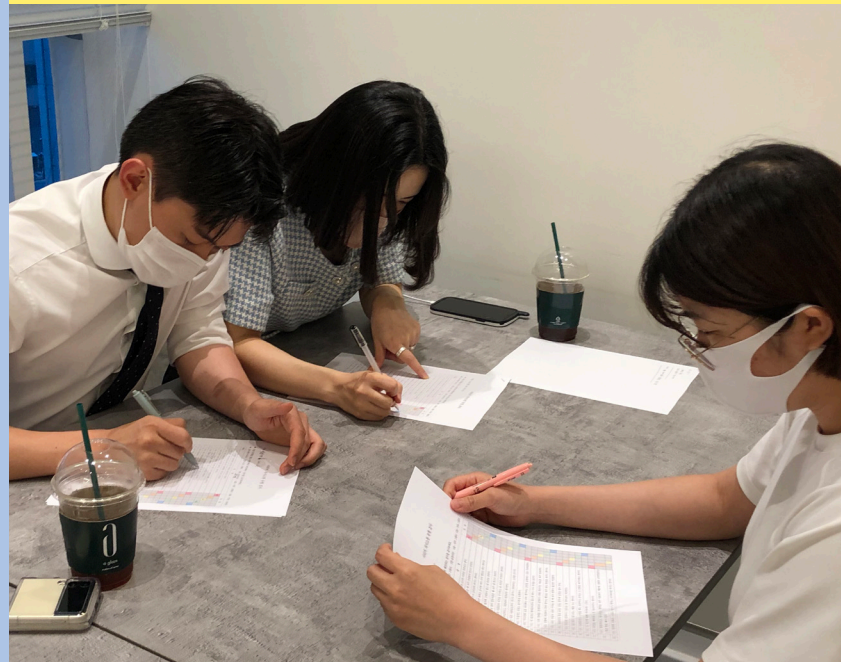
토닥토닥협동조합, 권용남

전문상담사와 함께

내 안에 울고 있는 금쪽이를 만나보며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방법 배워보기

Chapter 2. 판길 걸어보기

12



- **이정우** 7회차 때 죽음에 관해서 나한테 정말 소중한 질문 일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벌써 끝났다는 게 아쉽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 돌아보면서 나에 약점과 강점을 찾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 **정서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죽음, 비합리적 신념, 미해결과제를 배웠던 회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내가 내 삶에 더 주체성을 가지고 (외부에 기대지 않고) 내 행복에 기여 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기쁨을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 **김경민** 7회차 '죽음'을 주제로 강의를 들은 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어서 뜻깊었고 어떡하면 나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알게 되었어요!!!
- **이승엽** 매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오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회차는 지금 방금 진행한 오늘의 회차이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긍정심리학) 매일 나의 길을 포장하고 걸어오다가 딴길을 통하여 나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쉬다가 갈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선정** 마지막 회차인 8회차가 기억에 남습니다. 강연과 활동은 매 회차 모두 흥미로웠고 나의 정서에 도움이 되었는데 금쪽이 학과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8회차 수업에서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초중고 시절에도 대학 생활도 항상 정형화된 수업과 규칙적인 생활 안에 갇혀 있었는데 딴길을 통해서 평소에 배울 수 없었던 부분을 느끼는 것이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 **권효정** 기억에 남는 수업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 일기, 내가 말기암 환자라면? 나를 알아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신청을 했는데, 맞는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 ♥ 매시간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하기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해 나눌 수 있어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들에 더 깊이 느끼고 깨달게 되었고, 엄청나게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8회차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 **김설휘** 모든 회차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모두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회차에 팀원들과 자신의 강점을 살려 함께 팀워크로 무인도에서 살기 위한 논의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나가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치료, 자동적 사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강의(나 전달법, 사티어 의사소통 등)가 앞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회차에 죽음, 실존에 관한 강의도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딴길을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매우 멋진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딴길을 함께 걸은 금쪽이동지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지은** 7회차 수업 죽음과 관련된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15가지 중 삶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남기는 테스트를 했는데 제 삶에서 그게 '사랑' 이었고 그게 제게는 무척이나 소중한단 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대학 교양을 듣는 기분이었고 어떤 질문이든 감정이든 수용 받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 **조현정** 사티어 의사소통 검사, 내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때까지의 갈등,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집단 심리프로그램이라 심도 있거나 크게 배우는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 없이 가볍고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열정적인 센터 상담사님들과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적극성으로 매회 더 깊어지고 알아가는 게 많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

세상을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이란 말처럼 또래들과 결이 비슷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이라 순간이지만 소중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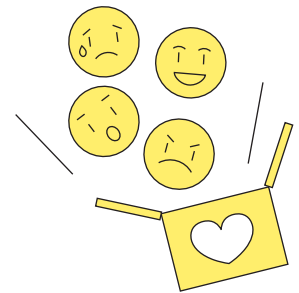
● **김문주**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탐색해보는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음!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경험을 해 온 다른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좋았음!

● **박아영** 금쪽이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론 설명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테스트를 같이해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그전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배웠는데, 앞으로 실생활에 잘 활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주신 강사님과 함께 교류하며 참가한 탄길 학생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 기회가 되면 또 수강하고 싶습니다.

● **강다현** 나에게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러한 과정을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특히 6회차 때? 했던 에고그램 테스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약점과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매회 차 수업이 알차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탄길 강의는 또 들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 **배주희** 제가 수업 도중 선생님에게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 “조금의 노력 혹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서 참여한 금쪽이학과에서 저에게 조금의 변화를 선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학과운영

나도배우다 학과

교육극단나무테랑, 주소현

직접 무대 위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보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나도 배우다!

Chapter 2. 판길 걸어보기

18



딴길을 걸어 본 소감

- **조지은** 대본을 외우고 사람들 앞에 나를 표현하는 것이 처음인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을 했습니다. 첫날 같이 수업 듣는 동기와 어색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바라만 봐도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제게 유독 기억에 남을 수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지인들을 초대해 그동안 연습했던 연극을 공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관객이 없었을 때는 큰 생각이 없었던 거 같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호응해 주고 했을 때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동기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할 때 몽클했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웠습니다. 다음날 딴 길 졸업식에 무대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두 달 적지 않은 시간 나도 배우다 학과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무대 앞에 섰을 때 부담감을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 친구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 **전소연** ‘나’ 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극 속의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그 역할에 몰입하는 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살짝 발을 담근 것뿐이지만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열정적인 선생님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동료 배우분들 덕에 재미있게 연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되어가는 연극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딴 길을 걸으며 평소의 생각과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이별할 수 있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기의 기원이 놀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첫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학과 분들과 만나 어색했지만, 단어 몸으로 설명하기, 솔래잡기 등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놀이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극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며 느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주간의 수업이 끝나서 시원섭섭하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여행”이라는 극을 완성하며 느낀 감정들은 마음속에 꽤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은주**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과 맞춰보는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 **곽미소** 연극, 공연이라는 단어는 늘 동경의 대상이고 무대는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지만, 용기도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 딴길을 통해서 연극배우 체험을 해봐서 뿌듯합니다. 특히 마지막 수업이 인상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친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수업에는 눈빛만 봐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구에 나와 취미를 공유한 든든한 친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연극을 기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신 담당선생님 늘 열정 넘치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유빈** 딴길을 걸어본 소감: 저는 나는 배우다 학과를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10대 때였는데 시도는 못

해보고 있었지만 20대가 된 지금이라도 해본 게 정말이지
잘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길을 걸어본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발전 할 수 있던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 **김유진** 평소에 관심 있었던 연기를 체험해봐서
좋았습니다. 처음 하는 연기가 어색했지만, 회차가 늘어갈수록
연기가 자연스러워져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8회차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지인들을 불러 모아 제 연기를 보여준
것이 재밌었습니다. 다 같이 만든 연극에 제 지인들이 감동한
것을 보고 짧은 기간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 같아
뿌듯했습니다.

● **이은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는 첫 수업부터 싹 없애주셨어요.
일상에 지친 가운데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에
위로와 활력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직하면서
공연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련 경력이 없었지만,
나는 배우다 경험을 녹여 잠깐이었지만 제가 배우고 느꼈던
바를 면접장에서 말씀드렸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수업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용욱**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인데 선뜻 발을 못
내밀어 보다가 탄길 덕분에 36년 만에 첫 도전 해봤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탄 길에서의 시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동 이어가고 싶어요. :)
연극 수업이라 해서 처음부터 대사 암기. 연기 지도 같은

수업만 있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에서는
서로 친목과 몸풀기 게임, 몸으로 표현하기 등의 수업을 해서
신기했어요. 연극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 협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준 탄길!! 고마워요!!

● **이채원** 오랜만에 한 연극이라서 많이 떨렸습니다.
옛날에는 연극배우가 꿈이었는데 무대가 좋아서, 다른 내가
되는 것이 좋아서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나는배우다 학과를 통해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아서 연극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진** 용기가 필요한 탄길이었었는데 청년센터가
열어준 덕분에 좋은 기회로 좀 더 빨리 경험하게 돼서 기쁩니다!
목요일만 기다릴 정도로 재밌었고 이렇게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기억에 남는 수업은 첫날과 마지막 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 소개를 그렇게 길게 말한 것은 처음이라 무척 떨렸고, 다양한
사람들의 오묘조모를 알 수 있어서 흥미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첫날로 돌아가서 쌤들 자기소개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듣고
싶어요. 마지막 수업인 오늘은 진짜 소품, 의상 장착하고 관객
앞에서 선보인 무대라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무대
한번은 올라가 봐야지~ 했던 것을 이렇게 처음 이뤘네요. 제
연기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도 궁금합니다. 수업은
이렇게 끝이지만 기회만 된다면 또 만나서 연기하고 싶어요.
히히 우리 멤버들 너무 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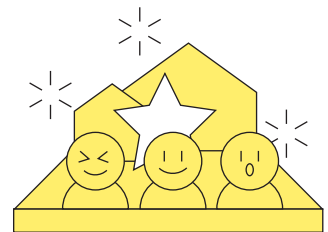
● **변혁민** 많은 사람과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함께 웃으면서 연극을 준비하는 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아쉬워서 많은 곳에서 연극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힐링이 되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었습시다:)

● **김지연** 판길을 통해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연극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나의 극을 완성해서 공연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졸업식 전 마지막 수업에서 지인을 초대해서 공연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 **권은채** 연극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판길을 하면서 연극을 한다는 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협동과 애정이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ㅎㅎ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연극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에너지 넘치는 작업인지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느껴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ㅎㅎ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이경은** 비록 판길을 끝까지 걷지는 못했지만, 다 같이 하나의 연극을 완성하고 그를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춰간다는 게 무척 두근두근했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과운영

도전! 사진작가 학과

라온, 문승호

사진가가 되어 사진 전시를 하고,
취업난 속 개인의 역량 강화와 일상을
나만의 시선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진 취미 개발은 덤!



● **박고은** 처음 시작은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어요. 마침 딱 첫 수업에서 잘 찍은 사진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어 궁금했던 점이 바로 해소되어 좋았어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제게 잘 찍은 사진이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예쁜 사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름한 턱선, 긴 다리, 비율이 좋은 사진 등 누가 봐도 예쁜 사진이요. 하지만 이런 사진은 잘 찍은 사진보단 예쁜 사진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예쁜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일지라도, 제게는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잘 찍은 사진은 나다운 사진, 대상이 그대로 잘 느껴지는 모습이 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나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한주씩 사진 과제를 하고, 작가노트를 작성해 보며 이전보다 사진 그 자체를 즐기게 되고, 감상하며 이제는 사진 촬영이 취미생활로 자리 잡게 된 거 같아요. 아직은 사진 속에 만족할 만큼 나다운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사진에 대해 배우고 촬영하며 전시회까지 해본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나다운 모습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작가님과 라온스튜디오 선생님들, 함께 좋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박장용** 맨 마지막 수업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수창청춘맨션에서 진행될 전시에 제출할 각자의 사진을 서로 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다른 학생들의 사진들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10년 전

사진을 처음 시작했던 저를 떠올리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찍고 싶어서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구도, 상업성, 화려함, 감성 사진 등등 다양한 틀에 얽매어서 진짜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본 함께한 학생들의 사진은 이런 틀이 아닌 진짜 자기가 찍고 싶은 장면을 찍고, 감정을 잘 드러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큰 자극이 된 것 같아가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딴길은 10여 년간 즐겨왔던 사진이라는 취미가 지루해지던 중에 새로운 자극을 얻어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주간의 시간은 평소 취미나, 아마추어 프리랜서 사진작가 수준에서 머물러 잘 알지 못했던 전문가다운 사진작가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친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듣지 못할 이야기들도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딴길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라온스튜디오 문승호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청년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박한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조명이나 반사판을 이용해서 인물사진을 찍어보았던 수업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활용하는 법을 처음 배웠는데 어느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사진의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고 그 원리까지 잘 설명해주셔서 유익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딴길 수업을 해본 소감은 이 수업으로 인해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올라갔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스튜디오 사진촬영과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수진** 탄길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는 사진을 왜 찍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예뻐서, 찍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냥이라는 이유가 없어졌다. 어떤 감정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사진기술, 특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조명까지 이론부터 실전까지 다룰 수 있는 수업이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 **조은비** 사진 테크닉에 대한 수업도 좋았지만 사진 감상법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평소라면 보고 지나쳤을 사진도 상상력으로 접근해보고 이 사진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매주 배울 수 있어서 한주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진테크닉은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일상도 더 아름답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못 본다니 아쉽지만 모두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어요.

● **이명진** 회사 생활 중 사진촬영이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탄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탄길 수업은 사진 초보자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쾌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실전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수강생분들과 함께 사진에 대해 비평해보았던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같은 사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 재밌었고, 제가 찍은 사진을 찰떡같이 이해하는 분들을 보며 사진 한 장으로 나의 마음이 표현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조명을 직접 사용해보며 사진을 실제로 찍어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을 직접 만지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강민경** 사진 수업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일이 어색하기만 했고 일찍이 학습의 끈을 놓은 지 오래라 집중력도 빨리 바닥나고 여러모로 걱정이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전 이 수업을 꽤나 좋아했고 큰 관심을 기울인 거 같습니다. 탄길학교의 사진 수업은 제게 꽤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당일 과자를 굶고, 간식을 포장하며 쉬는 시간에 나눠 먹고 그럴 때가 정말 좋습니다. 학교 다니는 느낌이 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꼽으려면 사진 편집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수업엔 온종일 굶시고 얼굴이 하얗게 뜨신 선생님께서 논스톱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필기하며 수업을 따라가니 유독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유익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로 이루어져 있던 수업이라 그리 집중하였던 것이지만 멀리서 보면 묘하게 우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유쾌하게 탄길을 걸어본 거 같습니다. 이런 수업이라면 일주일에 다섯 번은 듣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회기 수업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윤수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친절하고 재미있게 진행해주셔서 불편함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황지혜** 저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을 사진 찍어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항상 “자동모드”로 놓고 연속 촬영을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고르다 보니 항상 찍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연속 촬영 버튼을 누르고 찍은 사진을 고를 때도 기계적으로 사진들을 고르다 보니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도전사진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빛 또는 조명을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기초적인 사진 촬영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싶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재밌고 좋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5회차 리터칭과 사진 감상법, 8회차 크리틱입니다. 제가 웹디자인으로 일하고 있어서 포토샵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포토샵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 정말 세밀하게 알게 계셔서 저도 몇 가지 툴로만 사용했는데 저의 직업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과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8회차 크리틱, 저는 예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르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정작 무엇을 찍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담고 싶은지는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학생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여행하는 것처럼 다른 시야에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듣는 저도 으샤으샤해서 8회차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과제의 주제가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 등 저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분들도 모두 좋으셔서 더욱 편한 분위기에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전사진작가학과를 다니면서 느낀 사진은 그 순간의 분위기, 기분, 날씨를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의 사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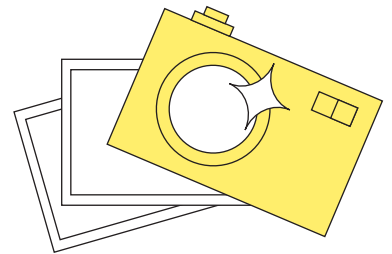
● **노청미** 예전부터 카메라로 사진찍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운 좋게 대구 청년학교판길 도전사진작가학과 수업을 듣게 되었다. 성향이 내향적인 터라 내 의견을 드러내고 말하는 수업에 매우 당황스럽긴 했지만 1장의 사진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진 전시를 위해 작품 사진을 찍는 과정은 걱정이 많았지만, 그동안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게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뻐다. 아직 액자로 제작되어 전시된 사진을 보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내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에 설렌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다운 취미를 하나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신청하게 된 거라 이 수업을 통해 사진에 업을 둔다든가 하는 거창한 뜻은 없지만 8주간의 수업은 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석문수** 20대의 취미였던 사진을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 사진트렌드와 미처 몰랐던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바쁜 일상으로 인해 그동안 취미를 잊고 지냈는데 탄길학교 참여를 계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8주간의 강의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문승호실장님을 비롯한

라운스튜디오 임직원분들 그리고 탄길학교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 **박혜정**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시작한 탄길
수업이었어요. 간단한 사용 방법이나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울 거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8주간 꾸준히 다니면서
학생분들과 교류도 하며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사진을 찍어보는
것에 의지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마음에서 마음이 담긴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뀐
계기가 되었어요. 8주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수업을 듣고 싶어요.

● **김동재** 8주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길지만 저에겐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야를 탄길 수업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운영

반려채소 키우기 학과

희망토마을사회적협동조합, 유경호

비싼 유기농채소?

코로나블루?

새로운 취미?

이 모든 것을 홈가드닝으로 해결!



- **강정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공심채 수업입니다. 다른 반려 채소들과 달리 접하기 어려운 채소라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키우고 있습니다. 따밭길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매번 참여하지 못했었기에 이번에 참여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매주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고 반려채소들을 기르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따밭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윤희** 코로나로 고민하던때에 마당 한 칸에 1평 남짓 텃밭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 '청년학교 따밭' 현수막 발견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흙냄새, 희망토내음을 담아갈 수 있었을텐데 생각도 들지만, 반면 많은 과 중 선택이유 하나는 '코로나 부담 없이 실외에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였기 때문에 반려채소키우기학과를 선택한 덕분에 이장님과 동기들을 만날 수 있지않았나 싶다. '언제 8주 과정이 다 지나갔나, 뜨겁던 여름 해를 함께 맞았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웃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파노라마같이 아직 여름 거기에 있다. 마당 텃밭에도 가을이 스며들어 무 씨앗을 파종했는데 이것 역시 이장님이 주신 무 씨앗이 포함되어있고, 여전히 제한된 화분 속에서 열심히 뽀고 있는 대파 모종도 드디어 텃밭으로 옮겨 옮겨줄을 나게 해줄 것이다. 대파는 월동을 끝내고 봄이 올 때 다시 올라오면 아마 바빠 지내느라 잊고 있던 희망토이장님들과 동기들 생각이 다시 나게 해줄 것이다!(아! 배워온 천연 농약을

사계절 내내 부리면 잊을 수 없을지도:))진짜 아낌없이 퍼주신 이장님들, 같이 놀아준 착하고 이쁜 동기들 넘 감사합니다♡

- **고승지** 플랜트 킬러였던 제가 반려식물학과 수업을 들으며 식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햇빛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물을 무작정 시간 맞춰줘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배웠어요.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식물의 종류, 상태에 따라 맞춤 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식물과 좀 더 친해지게 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내년 따밭학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신주섭** 이번 기회를 통해 식물 키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색다른 식물을 키우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만족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쳐주신 이장님들께 감사합니다!
- **이인규** 채소를 키운다는 시도 자체의 진입장벽을 많이 낮춘 수업이었습니다. 도심 속 농장에서 힐링하고 삶을 되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희망토농장 관계자분들과 대구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주영** 식물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 배우고 싶어 신청했는데, 잘 알려주신 덕에 베란다에서 무력무력자라고 덤으로 조금씩 수확할 수 있는 반려식물을 볼 때마다 부듯하네요. 덕분에 조금은 더 식물과 친해진 거 같습니다.
- **전수민** 푸릇푸릇한 새싹들, 모종들을 키워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참여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키우는 채소들 이야기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들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준 탄길에 감사합니다. 탄길이 끝난 후에도 매일 채소들에 물을 주면서 추억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회 재밌었습니다.

● **허성희** 매회 반려채소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든 반려채소들이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가져와서 키우는 것이 주다 보니 수업보다는 반려채소들의 성장 과정에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처음 데려온 상추. 상품이가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고 허리가 기울어 걱정했던 일, 퇴근하고 돌아오니 앞사귀가 애벌레 한 마리에게 초토화되어 멘붕했던 일, 다른 작물에 비해서 충격적인 속도로 자라나던 새싹 보리 등등 평소에 실내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보니 약간의 매너리즘이 오기도 했던 때, 저에게는 신선한 리프레시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즐거운 경험하게 되어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반려 채소는 취미로 계속 이어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김진숙** 토요일마다 새로운 식물을 심어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우면서도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싹 보리 수업은 키우기도 쉽고 집에서도 잘 자라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볼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강성은** 수업을 들으며, 반려채소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주마다 한 가지의 식물을 심고, 잘 자라고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며 식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주간의 수업이 끝나고,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심은 작물들을 수확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식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은 반려 채소들과 친해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탄길을 걸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8주 동안 주말이 즐거웠어요!

● **박지영** 아파트에서 채소를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데려온 대파, 버터헤드, 새싹보리, 공심채가 집에서 쑥쑥 자라는 걸 보니 나도 채소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매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니 약간의 기분전환도 되었다. 마지막 수업에 열린 팸파티에서 먹었던 고기쌈은 정말이지 극락의 맛이였다. 이장님이 만들어주신 볶음밥은 더할나위 없었다. 즐겁고, 유익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수업이었다.

● **정다결**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하는 채소의 생육과정과 수확의 기쁨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급하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수업으로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창** 식물에 대해 많이 배웠고,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 덕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습니다.

● **서준표** 상추를 심고 기르면서 내가 농사에 너무 관심 없이 대충 정보를 수집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귀농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과운영

여행자 학과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김경호

랜선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함께 가는 대구·경북 여행
인생 단길을 함께 떠날
여행 메이트 만들기

Chapter 2. 판길 걸어보기

42



탄길을 걸어 본 소감

- **이정현** 랜선 유럽 여행이 신선한 방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가장 좋았어요! 낯선 사람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부터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에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탄길을 위해 고생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학교 탄길은 힐링이다!
- **김민경** 7강 꿈꾸는 인생 탄길 수업을 통해 여행으로 먹고사는 꿀팁이 유익했습니다. 같이 사이 좋게 지내서 모든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 **주소민** 랜선 아시아여행 수업은 베트남 현지분이 오셔서 이야기해줘서 좋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마다 탄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재미있고 매년 신선한 주제의 수업을 하여 좋았습니다.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 **김동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던 청도 여행이 가장 좋았습니다. 탄길은 스트레스 해방구!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 **김지민** 수업 중 7회차는 실질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함께 떠난 여행들 즐거웠습니다. 좋은 추억 인연이 생긴 거 같아요.♥
- **지운영** 여행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현직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직업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자학과를 통해 다시 한번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여행을 자주 다닐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 탄길을 통해 저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더운 여름을 익사이팅한 물놀이와 함께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좋았고, 베트남 현지 음식도 경험하고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몇 년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에 청년학교 여행자학과를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소통하면서, 무더운 대구의 7, 8월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학과 내년에도 쭉~욱 이어가면 좋겠어요:) 청년학교 탄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무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김정래** 5회차 랜선아시아여행은 현지인께서 소개해주는 강의였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알려주시려는 정보도 좋았고 강사님의 강의를 위해 준비해주신 부분도 감사했습니다. 여행자학과라는 것을 본 순간 고민은 1도 하지 않고 바로 신청한 만큼 후회하지 않은 학과입니다. 일과 집을 반복하던 저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탄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탄길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다양한 탄길 학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제다은** 시골 타지에서 혼자 2~3년간 지내며, 코로나까지 겹쳐 고립된 상황을 겪으며 약간의 우울감이 있었는데, 다시 대구로 돌아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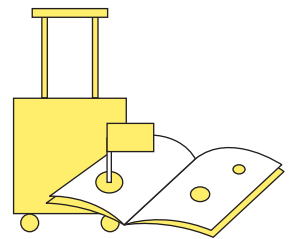
나누고 여행을 떠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일상에 활력이 된 것 같습니다. :) 대구 떠나기 전 마지막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김수진** 청소여행 때 소싸움을 구경하는 새로운 경험과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장소에 방문해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함께 여행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현** 청도여행 수업 때 늘 가던 장소를 새롭게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알차고 즐거운 수업 감사합니다.

● **서민규** 가까운 왜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길이 그저 나의 취미 삼은 딴 길인 줄 알았는데, 내 길이였다. 내 인생과 같더라.

● **이은정** 7회차 수업이야말로 여행자학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단순히 소비성 여행만을 가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여행 말고도 내 고장 또는 근교를 가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여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진심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단순히 다른 지역에 놀러 가서 재밌게 놀다 오는 것만이 여행이 아닌 업이 된 여행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청년들과 정말 그 관심사만을 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운데 청년학교판길 덕분에 진짜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연령, 직업의 청년들이 관심사가 같다는 것만으로 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순수하게 관심사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학과운영

타로교육 학과

대구타로, 임진아

타로카드를 배우고,
자기성찰과 치유의 기능을 살려 건강한
조언을 나누고 소통하는 타로이야기



● **강지윤** 평소에 관심 있었던 타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타로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로를 배우면서 꼭 운세, 미래를 맞힌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고민을 풀어간다고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 **김진윤** 마지막 회차 때 서로 타로 봐주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배웠던 타로를 다시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보러 갔던 타로를 직접 해준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딴길학교는 저의 학과나 진로와 관계없이 호기심 하나로 새로운 길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 덕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졸업식 때 다른 분들께 타로를 봐주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찼습니다.

● **서재현** 새로운 분야를 처음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 **서정환** 단순히 타로카드의 해석만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카드의 요소요소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셔서 타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수강생들끼리 서로 상담 연습하는 실습을 강의 커리큘럼에 추가해주셔서 더욱 생생하게 타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이성애** 딴짓 좀 해보자고 생각해도 무턱대고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는 막막하다. 원하는 것이 뚜렷한 사람은 그나마 방법을 찾아볼 여지라도 있다. 나를 둘러싼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잘 모른다. 청년센터의 딴길은 이런 점에서 매력적이다. 쉽게 학원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수업 목차와 내용이 체계적이라 일단 참여하고 따라가면 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영역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미 하고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나는 평소 내 관심 영역이라 할 만한 것과 1%의 교집합도 없는 타로교육학과에 참여했다. 마음만으로는 미적대기 일쑤지만 계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 딴길 수업을 통해 두 달 동안 타로의 세계에 집중했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길 좋아하지만 빠르게 사그라드는 면도 있어 얼마나 더 타로와 함께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에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나로서 '딴'길에서 배우고 느낀 새로운 경험들이 나를 좀 더 '딴'딴하게 만들어주는 양분이 되리라 믿는다.

● **이슬아** 저는 모든 회차들이 기록을 하며 배움의 시간이었기에 타로 수업을 신청해서 잘 들었다라는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듣고 가볍게만 생각했던 타로에 대해 외울 것이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후회도 했었는데 선생님의 지도와 모든 학생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끌어 주시고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뭐든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무사히 6회차까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길학교를 하면서 타로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학과의 선생님께서도 인해 좋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 **이애영** 판길 교육에 다양한 학과가 있었다. 전부 다 하고 싶었다. 그중에도 하고 싶었던 타로교육학과가 유일하게 시간이 맞아서 하게 되었다. 차후에 선생님께서 경쟁률이 세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을까,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보니 듣고 싶었던 것이었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교육을 듣게 되었고 시간도 되었다는 것이 참 행운이었다.

즐거운 타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타로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타로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배워가면서 재미있고 신비로웠다. 메이저 카드에서 바보가 성장하는 이야기와 4원소 각각의 의미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 더 뜻깊었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학과가 너무 공부만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좋았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알고 싶던 것을 알게 되었으니 수업을 들은 보람이 있었다. 다만 아쉬운 건 아파서 빠진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배웠던 것을 다시 보면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상담하면서 알게 되는 학우들의 이야기와 상담에 대한 열정들 때문에 학우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타로는 무엇일까? 타로는 내면을 보고 걸어가는 상담인 것 같다.

● **이채린** 두 달 동안 타로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금요일이 기대되었고 수업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그 많은 카드의 의미를 내가 다 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아, 이걸 단순 암기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분들과 재밌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은주** 카드를 배우면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차가 재미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좋아 보이는 카드와 안 좋아 보이는 카드를 세장씩 고르고 선생님이 카드에 대해서 해석해주셨을 때, 저의 상황과 비슷한 카드들이 많아서 신기했고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입니다 판길학교는 끝났지만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히 리딩을 해볼게요.

● **제갈정** 안녕하세요 제갈정학생입니다-! 평소 타로 유튜브를 자주 봤었는데, 카드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고민을 해소할 수 있고 생각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아했었어요-! 이번 타로 교육을 들으면서 타로카드 해석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지막 회차에는 서로 상담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내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머릿속을 많이 비울 수 있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 사실은 답이 없구나, 내가 후회 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답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타로 교육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의 진로 고민이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1회차와 마지막 8회차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첫날에 서로 처음 만나는 설레는 기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고 마지막 회차 때는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 아쉬우면서도 좋아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주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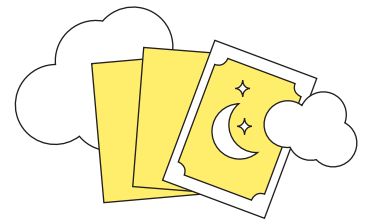
● **최지영** 타로를보기만했었는데 실제로배운다
생각하니 마음이 들 뻗었다 타로카드를 첨 펼쳐서 보니
색다르고 다양하고 봐야 할 게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토끼
열정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타로카드를 새롭게 알게 되고
탄길을통해 타로 상담가가 된 거 같다 탄길수업을 4회째?
수강중인데 8주간 또 다른 길을 걸어볼 수 있어서 매년 너무
좋았다. 아직 준비 중으로 다른 곳을 알아보는 중 탄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의 탄길 여행기는 시작된 거 같다 탄길을
통해 회사생활이 힘들어도 견디게 되고 또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된 거 같아서 좋았다.

여름이 다가올 때쯤 탄길을 추억하며 또 다른 탄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기다릴 거 같다! 탄길을 기획해주신
청년센터 관계자분과 우리를 타로 상담가로 만들어주시려고
애써주신 임진아 타로선생님과 함께 으쌰으쌰하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 타로 상담 가가 되신 우리 수강생들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 **하영경** 평소에 타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8주간의 수업 중
1회차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수업이며 타로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는 시간이고 타로카드의 주제, 역사, 제작자가
있다는 것에 감탄했고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 전에는 타로
카드 그림에 대해 독특하다는 느낌만 있었는데 수업 시간마다
카드 그림의 내용을 배우다 보니 많은 뜻이 있고 세심하고
정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타로카드 외에 타로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고 그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타로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해줄 수 있어서
보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점, 고민을 타로 카드를 통해
성찰하며 해결하는 데 도움 되었습니다.

● **황현서** 수업하면서 매일 데일리카드를 뽑아보는
속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 수업에 참여하면서 나를 좀
더 알아 가보자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학과운영

HELLO, VEGAN 학과

(주)윤슬메이커스, 전다희

지구와 나를 위한 한 걸음,
비건을 배우고 직접 만들며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시작,
비건라이프!



● **최지윤** 평소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고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거지바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보니 보람 있었습니다. 딴길을 통해 관심이 있었던 비건과 제로웨이스트를 더 알아가면서 최대한 실천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권재경** 아로마 향수를 만들면서 지금의 내 상태와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관심만 가지던 비거니즘, 친환경적 제품을 수업을 들으며 직접 만들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시중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그 재료를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재료를 직접 만지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친환경제품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친환경적으로 바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별** 첫번째 수업 스머지 스틱 만들기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허브를 만질 때마다 허브 향이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라벤더 향이 좋았습니다. 만들고 나서 원룸 베란다에서 말렸는데 향이 좋았습니다. 들어만 보았던 내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장유진** 허브를 손으로 만지면서 야무지게 문치며 스머지스틱 만들었던 것이 첫 수업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으로 마음이 정화되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주말에 새로운 취미생활을 통해 뭔가를 얻어가는 기분이었음. 딴길 덕분에

매우 알차고 보람된 주말을 보내었습니다.

● **문혜진** 감정향수 만들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지만 천연 향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향이 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건과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어렵게만 느껴지고 실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잘 몰랐는데 8주 동안 수업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 좋았어요.

● **김예은** 모든 회차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 중 샴푸바를 만들었던 3회차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샴푸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가 평소에 많이 접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할 수 있어서 good

● **곽수현**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샴푸바를 만들고 사용해보니 너무 좋았고, 한번 더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새로운 걸 배우니 기분전환 되고 한 주의 마무리가 즐거웠어요.

● **한승리** 인퓨즈드워터를 만들어 먹은 이후로 맛있기도 하고 집에서도 실행가능해서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유익했고 다음에 또 다른 딴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 **이은실** 아로마 냄새를 맡으면서 힐링할 수 있었던 허브테라피가 좋았습니다. 틀에 박힌 일상을 살다가 우연히 보고 신청했는데,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두달이었다. 평소 접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 매주 재밌었고, 힐링되는

시간들이었다. 끝나서 아쉽다.

● **이연순** 모든 회차가 다 즐겁고 유익했어요. 이론 시간에는 몰랐던 유해물질에 관해 깨닫게 되어 좋았고, 직접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학업과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관심을 갖고있던 분야를 선택해 짧고 굵게 배우고 만드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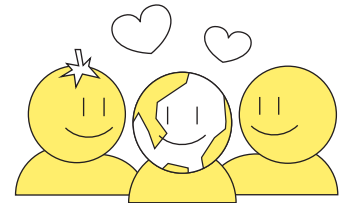
● **김효주** 제로웨이스트 수업을 통해 소비 습관(일회용품, 배달)을 돌아보게 되었고. 평소에 원데이클래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체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이성희** 감정향수 만들기 수업 때 시트러스계열을 평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의 기분이 활력을 얻고 싶은 기분이라 시트러스 향이 좋게 느껴졌어요. 감정에 따라 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너무 보람 찼어요. 일요일 두시간이 일주일 힘이 나게 해줘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났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강홍금** 하나하나 다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친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매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다영** 다양한 향을 맡아보고 디퓨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음.

● **김민화** 나의 심리/감정/컨디션을 반영 시켜서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현재 나의 컨디션 파악도 되고, 도움이 되었어요.



학과운영

3D프린터 학과

(주)이엘디지털랩, 이동호

3D모델링과 3D프린터를 직접 실습하고
우리 주변의 건축물을 설계해보며
디지털 전문기술을 이해하고
역량 키워보기



딴길을 걸어 본 소감

- **김서연** 7회차 때 퓨전360으로 작업한 것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 **이혜진** 새로운 분야에 가볍게 도전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최수영** 마냥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3D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3D프로그램으로 바퀴를 만들 때는 따라 하기 바빴는데 라이언 머리를 만들 때는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에 더 흥미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문화재를 3D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알차게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성연모** 6, 7회차 수업-3D프린팅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설계해서 2D인 오토캐드와는 달라서 신기했고 입체감이 있는 도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한 도면을 3D프린터로 제작한 결과물을 만져볼 수도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한 체험이었습니다.
- **정다원** 3D프린트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설계도 해 보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기도 해서 상당히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주 1회차 보니 많은 기능을 익힐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 덕에 예쁜 결과물도 만들게 됐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없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접할 수 있는 "딴길",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또 다른 딴 길을 걸어보고 싶네요~

- **천현우**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작업을 해봐서 좋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배워보는 게 좋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 **최지원** 안녕하세요. 3D프린터학과에 신청한 최지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에 적응해 갈 무렵 문득 내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배우려면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할까? 를 고민하다 청년센터딴길학교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궁금한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분야라 선생님께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분야를 터득하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닦아오신 분들께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매회 차마 다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꼼꼼히 천천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3D프린터에 대해 배우며 내가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사회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도전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관심 있는 일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좀 더 넓어진 기분이 들어 기쁩니다.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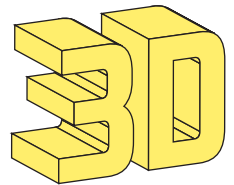
- **박정원**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주관하는 <2022 대구청년학교 딴길>에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 대구청년학교 딴길에서 개설된 8개의 학과 중에서 '3D프린터 학과'에 참가한 박정원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3D프린팅 설계 프로그램'과 '3D프린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2 대구청년학교 메이커하우스 리움에 3D 프린팅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3D 프린팅 제품]을 제작하는 여러 대의 3D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용 대표님과 메이커하우스 리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3D프린터 학과 참가자들]에게 [3D프린팅]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3D프린터 학과의 교육에 최적화된 메이커하우스 리움에서 참가자들께서 3D프린팅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3D프린팅 제품은 메이커하우스 리움의 모형입니다. 이제 저희 3D프린터 학과 참가자들은 각자의 창의적인 생각을 3D프린팅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3D프린터로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대구청년학교 탄길에 참가하신 여러분께서도 메이커하우스 리움에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을 3D프린팅 설계 프로그램과 3D프린터로 현실화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이커하우스 리움을 운영하시는 이일용 주식회사 이엘디지털랩 대표님, 메이커하우스 리움 선생님들, 3D프린터 학과참가자들, 2022 대구청년학교 탄길에 참가하신 여러분,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활동지원팀의 팀장님과 매니저님들,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최유정** 3D프로그램 다뤄볼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더 깊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 **강미지** 매회 배운 것이 많아 뿌듯한 8주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회차에 결과물을 확인하니 비록 어설피지만 완성해내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궁금증만 가지고 있던 3D 프린트라는 것을 탄길을 걸어보며 체험해 볼 수 있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홍재은** 마지막 회차, 처음 3D 프린트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예시 제품을 만들었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서 틀을 사용했더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3D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술이란 게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 위에 도움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 눈으로 본 건물 모형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던 것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어 색칠도 하고 테라리움에 장식으로 쓰니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야라고만 생각했던 3D프린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배운 것을 활용하며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체험주간

- 기간
2022년 8월 10일(수)~ 8월 14일(일)
- 내용
학과운영기간 중 일주일은 더 배워보고 싶은 학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타학과의 수업을 참여하는 기회 제공
- 학과
 1. 금쪽이학과
: 건강한 의사소통 배우기
 2. 도전! 사진작가학과
: 감성적인 사진촬영비법과 풍경사진 촬영비법
 3. 타로교육학과
: 타로로 파악하는 성격유형 22가지
 4. HELLO,VEGAN학과
: 컬러와 향으로 알아보는 내 마음
 5. 3D프린터학과
: 3D펜으로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주간

금쪽이학과
 도전!사진작가학과
 타로교육학과
 HELLO,VEGAN학과
 3D프린터학과

Chapter 3. 딴길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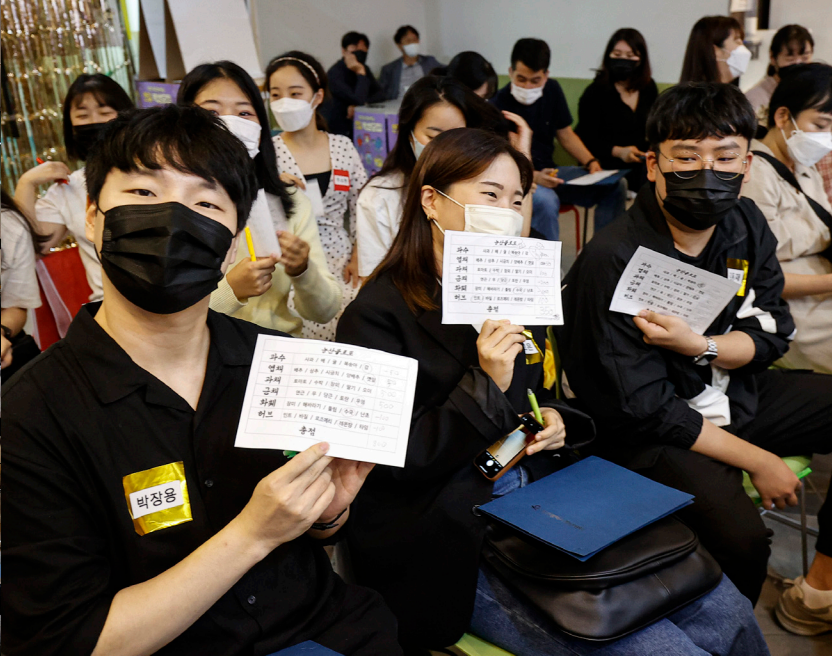
맺음

졸업식

- 일시
2022.09.02(금) 19:00~21:30
- 장소
청년센터활동그레 2층 상상홀
- 내용
 - ▶ 오프닝공연: 나도배우다학과 '여행'
 - ▶ 수료식, 시상식: 우수학과 및 우수학생
 - ▶ 졸업발표회, 4개 학과의 체험부스











2022 대구청년학교 판길 졸업을 축하합니다

금쪽이학과

김설휘 이정우 박아영 이승엽 김경민 배주희 권호정 정서현
백선정 이지은 조현정 김문주 안가현 강다현

나도배우다학과

이은솔 이한솔 팍미소 장은주 변혁민 전소연 김지연 권은채
이유빈 박수진 이경은 이채원 조지은 김용욱 김유진

도전!사진작가학과

박혜정 이명진 석문수 박수진 박한솔 오정연 정승민 노청미
김동재 윤수영 조은비 박고은 강민경 박장용 황지혜

반려채소키우기학과

허성희 강성은 조현창 강정현 김진숙 박지영 고륜희 이주영
이인규 전수민 신주섭 고승지 정다겸 서준표

여행자학과

김정래 지윤영 김지민 김동규 서민규 주소민 김수진 이정현
이영현 이은정 만수르 김민경 김현정 제다은

타로교육학과

강지윤 서정환 서재현 정은주 최지영 황현서 정수연 이성애
유지원 제갈정 이슬아 이채린 김진윤 하영경 이애영

HELLO,VEGAN학과

권재경 김한별 최지윤 장유진 문혜진 김예은 팍수현 한승리
이은실 이연순 김효주 이성희 강홍금 이다영 김민화

3D프린터학과

장수연 천현우 홍재은 성연모 최윤진 최유정 박정원 정다원
김연희 최수영 최지원 강미지 이혜진 김서연

2022 대구청년학교 딴길 가이드북

발행일

2022년 11월 17일

발행처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기획/편집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디자인

스튜디오 플로트

대구광역시청년센터

053-426-1939

www.dgyouth.kr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잡프'

www.dgjump.com

비매품

ISBN 979-11-977716-4-4

청년학교 판길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과 대안적인 삶의 방향,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

2022 대구청년학교 판길

Chapter 1. 판길 준비하기

Chapter 2. 판길 걸어보기

Chapter 3. 판길 돌아보기



비매품 / ISBN 979-11-977716-4-4